

2025 년 10 월부터 경영·관리 비자의 취득 요건이 크게 변경됩니다.

현재로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 본인에게 요구되는 조건

지금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음 중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① 경영·관리 분야에서 3 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을 것
 - ② 경영·관리와 관련된 석사 과정 수준의 학력이 있을 것
- ※ 경험이나 학력 중 하나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사업에 요구되는 조건

(1) 자본금 및 고용 요건

- 자본금이 3,000 만 엔 이상일 것
 - 상근 직원을 1 명 이상 고용할 것
- ※ 직원의 대상은 일본인,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2) 사업계획서의 전문가 인증

지금까지: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 가능

앞으로: 중소기업진단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평가가 첨부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3. 일본어 능력 요건 (신설)

신청자 본인 또는 상근 직원 중 한 명이 B2 수준(중상급)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B2 수준의 기준 (CEFR 기준)】

- 일상 회화를 거의 문제없이 할 수 있음
- 복잡한 업무상의 지시도 이해할 수 있음
- 비즈니스 문서를 읽고 작성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

신청자 본인이 일본어를 못하더라도, 상근 직원이 이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상근’이란 계약상 풀타임 근무이며 실제로 사무실에 상주해야 하고, 단순한 명의 대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체류 중인 사람의 처리 (경영·관리 비자 개정 후)

개정 기준의 적용 시기

제도 시행 후 3 년이 지난 뒤, 최초의 체류기간 갱신 신청 시부터 원칙적으로 새로운 기준(자본금·고용 요건 등)에 맞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체류가 인정되는 경우

개정 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 경영 상황이 양호한 경우
 - 법인세 납부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경우
 - 다음 갱신 신청 시까지 기준을 충족할 전망이 있는 경우
- 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체류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영주 허가에 대해

‘경영·관리’ 비자에서 영주를 신청하려는 경우, 반드시 개정 후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영주 허가가 인정됩니다.